

‘랜드마크’ 따로 세운다

문광부, 문화전당 인근에...내년 국제 공모

문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전당 인근에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할 상징물 건립을 국제공모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상징물 건립을 현재 입안중인 문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안에 반영해 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광부가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할 상징물 건립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광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문화전당의 지하 위주 설계에 반대했던 광주시와 동구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 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22일 오후 광주 감대중권컨벤션센터에서 문광부와 광주시,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 광주공청회에서 이병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시민들의 의견과 광주지역 각계의 의견을 존중해 랜드마크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랜드마크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랜드마크 보완 사업에 대한 지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 최종안에 이 사업의 추진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랜드마크 보완 상징물은 문화전당 인접지역에 세워질 것이며, 내년에 전문연구용역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제공모를 통해 상징물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의 이날 발표는 랜드마크 보완 사업에 대한 문광부의 의지를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지상 설계를 주장해왔던 시와 동구 주민들을 상당 부분 설득할 수 있겠지만 향후 상징물의 규모나 형태 등에 따라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단장은 “문화전당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인접지에 별도로 랜드마크와 관련된 기념물을 세울 계획이다”면서 “기념물의 형태나 규모, 성격 등은 용역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는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다 최근 랜드마크를 보완할 상징물을 전당 인근에 설치하는 쪽으로 선회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규모 등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채희종기자 chae@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지상 설계를 주장해왔던 시와 동구 주민들을 상당 부분 설득할 수 있겠지만 향후 상징물의 규모나 형태 등에 따라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단장은 “문화전당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인접지에 별도로 랜드마크와 관련된 기념물을 세울 계획이다”면서 “기념물의 형태나 규모, 성격 등은 용역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는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다 최근 랜드마크를 보완할 상징물을 전당 인근에 설치하는 쪽으로 선회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규모 등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채희종기자 chae@



오늘 처서...저만치 가을

처서(處暑)를 하루 앞둔 22일 해남군 화원면 한 농가에서 할머니가 빨간 고추를 햇볕에 말리고 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온다는 처서를 맞은 23일, 광주·전남지역은 더운 남서기류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현배기자 choi@

성공 광주체전, 이렇게 준비하자

3 작은 친절이 감동 부른다



열성 야구팬인 이기주(48·서울 거주)씨 지난 5월 광주일보가 개최한 무등기 야구대회를 보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 이씨는 카메라를 미처 챙기지 못해 대회 구경을 왔던 한 시민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했었는데, 인화된 사진과 함께 ‘잘 가셨느냐’는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던 것이다.

작은 배려의 감동 문화 광주 밑거름

김경철(64) 맥시호 호남 향우회장도 재미 대한체육회 부단장으로 몇 년 전 방문했던 전주를 잊지 못한다. 동포팀을 위한 전담 ‘도우미’가 도시의 역사 및 유명 장소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잘 해주어 경기만큼이나 고국 방문에 큰 의미를 두는 선수들과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시민들의 작은 친절이 다시 한번 그 도시를 생각하고 찾게 한다”며 “이번 광주 전국체전도 친절과 감동이 넘치는 우정과 화합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이번 체전의 첫 번째 목표를 시민 모두가 주인 되어 직접 참여하는 ‘시민체전’으로 치르려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도시마다 기본적인 인프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대회와 도시를 평가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체전 안내·환경미화·급수봉사 등 11개 분야에 3천 명의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 친절 교육을 했고, 17만 명의 범시민지원단을 구성해 체전종료 때까지 ▲질서·친절·정결운동 ▲도시미관 개선 ▲선수단 환영 및 응원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나 범시민



지원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모두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가 되어 작은 미소와 배려 그리고 박수를 아낌없이 보낼 때 10월 간치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 것이다.

안재오 광주시 육상경기연맹 총무이사는 “선수들은 긴 경장 상태이다 보니 ‘밥 많이 먹고 경기 잘해라’며 공기 가득 밥을 퍼주시던 식당 어머니나 카운터에 과일과 두근거려 해준 숙소 주인 아저씨같이 작은 배려와 친절을 배운 사람들을 잊지 못한다”며 “시민 모두가 10월의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방의 선택! 희망2007

‘朴 지지’ 26% 非한나라로 근해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2차 공동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17대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후보는 범여권 후보들과 가상 대결에서도 50% 이상의 지지를 격차로 크게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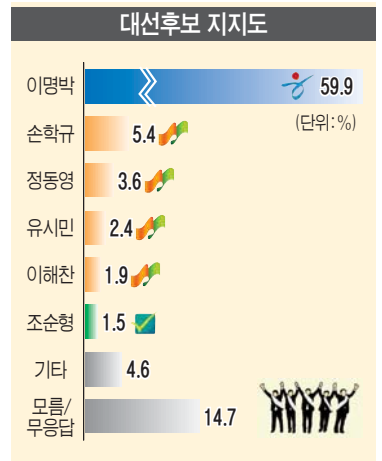
또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이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가운데 58.5%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여권 대선후보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로는 권영길 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광주일보를 비

롯한 전국 지역별 9개 대표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확정 직후인 2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공동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대선후보 지지도에선 한나라당 이 후보가 지난 6월 1차 조사 때보다 20%P 가까이 상승한 59.9%를 얻어 선두를 달렸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5.4%로 2위,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3.6%로 3위를 각각 차지



했다. 이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2.4%, 이해찬 전 국무총리 1.9%, 조순형 민주당 의원 1.5% 순이었다.

범여권 대선주자의 지지도는 두 달 전 1차 조사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7년 세계개편안을 22일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소득세 年 18만~72만원 덜 낸다

세계개편안 확정...내년 시행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구간이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돼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 서민층의 소득세가 급여와 가족수 등에 따라 연간 18만~72만원 줄어든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별공제제도도 3년 보유시 10%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7년 세계개편안을 22일

/이종태기자 jilee@연말뉴스

열린 세계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지난 96년부터 적용해온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11년만에 전격 조정, 1천200만원까지 8%,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1억2천만원 이하 35%로 부과하게 했다. 이에 따라 연금 4천만~6천만원 수준의 3~4인 가구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7천만원 급 여가구는 42만~55만원이 줄어든다.

▶해설 4면 ▶조사 보고서 인터넷광주일보(www.kwangju.co.kr)

한성준 선생에게 내린 편지 4편 수록! 1000만 독자를 읽혀 준 '한성준' 선생의 자서전 '한성준의 편지'와 '한성준의 편지'가 감동적인 초판본 '한성준의 편지' 무지개처럼 펼쳐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명숙·박성준 젊은날의 편지

한성준 선생에게 내린 편지 4편 수록! 1000만 독자를 읽혀 준 '한성준' 선생의 자서전 '한성준의 편지'와 '한성준의 편지'가 감동적인 초판본 '한성준의 편지' 무지개처럼 펼쳐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는 젊은 무부족이 읽어야 할 통통서

한명숙 전 총리를 작별 인사하시게 되었습니다